

권영국 대통령 후보 “노동중심 민주주의 실현해야”

금속노조·권영국 후보, 23일 정책협약 체결...노동권 강화·제조업 산업전환 대책 강조



금속노조와 권영국 대선후보가 노동권 강화와 제조업 산업전환 대책을 책임지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금속노조(위원장 장창열)과 민주노동당 권영국 제21대 대통령 후보가 23일 서울 구로구 민주노동당사에서 정책협약식을 열었다. 윤석열 정권 반노동 정책 폐기와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 투쟁을 선언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금속노조는 권영국 후보를 공식 지지하며,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광장의 요구를 실현할 유일한 후보”임을 강조했다. 업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윤석열이 개악한 노동법을 되돌리고, 노동자의 생존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권 후보의 당선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국 후보는 “윤석열 정권은 노동을 탄압하며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위협해왔다”며 “노조법 개정, 작업중지권 보장, 제조업 고용 책임제

등 민주노동당과 금속노조가 함께 추진할 과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는 노동 3권 보장, 작업중지권 제도화, 노조법 2·3조 개정, 회계공시·타임오프 제도 폐기 등 노동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이 포함됐다. 또 자동차·조선·철강 등 핵심 제조업 분야에 대한 산업전환 대책과 노동자 직접고용 의무화 등도 명문화했다.

특히 자동차 산업 공동화 방지, 납품단가 인하 금지, 공급망 노동권 보장, 정의로운 산업전환 협의체 구성 등도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조선산업과 관련해서는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다단계 하도급 근절, 중형조선소 육성, 하청노동자 안전보장 대책 등이 포함됐다. 철강산업 부문에서는 탄소중립 대응, 원청 사용자 책임 명문화, 고용영향 평가 도입 등을 협약했다.

금속노조와 권 후보는 “내란 세력 척결과 노동자 권리 회복은 하나의 과제”라며 “노동 중심의 사회 대전환을 위해 계속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원 활동 다양화, 직접 참여 확대 계기 되길”

금속노조, 교섭 요구 홍보 쇼츠 공모작 발표 ... 삼호중·한타·삼씨지회 수상

금속노조가 올해 교섭 요구를 주제로 주최한 조합원 쇼츠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4월 14부터 이달 19일까지 ‘2025년 교섭 요구 알려드림’ 쇼츠 영상 작품을 공모했다. 3곳 영상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금속노조 산별중앙교섭 투쟁에 관한 조합원 관심을 높이고, 올해 교섭 요구를 재차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박상만 노조 부위원장과 조합 선전홍보실, 정책실 등 심사위원 5명이 22일 오후 모여 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독창성과 ▲전달력 ▲관점 ▲기획성 ▲적합성 ▲완성도 ▲활용도 등 모두 7가지 항목을 놓고 평가했다.

심사 결과 박준안, 정은성 광주전남지부 현대삼호중공업지회 조합원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출품작 제목은 ‘야 너두 작업 중지할 수 있어’로 올해 금속노조 19만 통일요구안인 ‘안전한 작업 중지권 보장’을 주제로 삼았다. 위험한 조선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작업중지권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권리인지를 영상에 담았다.

우수상은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 교육선전부에 돌아갔다. 한국타이어지회 역시 작업중지권을 주제로 쇼츠를 만들었다. 제작에 참여한 김지훈 조합원은 “산재가 잦은 제조업 현장의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은 꼭 필요한 권리라는 점을 알리고 싶었다” 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몸짓패 ‘공구가방’에서

활동하는 이명희, 이우식, 이정주, 이형민, 주현록 조합원 팀이 가작을 받았다. 쇼츠 제목은 노조법 2·3조 투쟁송. 노조법 2·3조를 개정하지 않으면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 노동자들 역시 노조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주장을 노래와 율동으로 풀어냈다.

심사를 맡은 박상만 부위원장은 “쇼츠 공모전을 처음 해보는 만큼 참여가 저조해 아쉬움은 남지만 출품작들을 보니 ‘우리 조합원들 재주가 많구나’ 정말 놀랐다” 라며 “현장 활동이 다양해져야 한다. 이번 쇼츠 공모전을 계기로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길 기대한다. 다음 공모전에 더 많은 조합원이 함께하도록 사업계획·예산 반영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보자” 라고 말했다.

수상작을 비롯해 경기지부 대창지회(이민성 조합원·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 경주지부 일진베어링지회(윤수호 등 4명·국민연금과 정년 연장), 울산지부 현대글로벌비스지회(김영훈 조합원·멈춤의 용기와 생명을 지키는 권리) 등이 제출한 모든 쇼츠 공모작은 금속노조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우수 광주전남지부 삼호중공업지회

우수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

가작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공구가방

※ 공모전에 제출한 모든 작품은 금속노조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